

정보는 자산

최 근 접한 사슴에 관한 정보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가슴에 와닿아 소개하고자 한다.

농가 여러분들께서는 참고 삼아 사슴을 기르는데 유의하여 활용했으면 한다.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후뿔에 대한 새로운 평가다.

후뿔이라 하면 6~7월경에 절각한 사슴에서 다시 솟아 오르는 녹용을 말하는데 보통 초가을에 채취한다.

이 후뿔을 한의업계 쪽에서는 「움씩」이라하여 상당히 고가에 구입한다는 새로운 정보다. E사슴목장을 경영하는 L 사장에 의하면 후뿔(움씩)이 꽃봉오리 처럼 솟아 오를때 절각하여 판매하면 기존의 녹용 판매가격 보다 고가에 팔 수 있다는 것이다.

후뿔은 모든 사슴에서 솟아 오르는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영양상태가 좋고 전뿔의 절각

시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그러나 후뿔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1년에 두번 사슴을 마취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슴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고, 이듬해 녹용 생산량에도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무리한 강행은 삼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갈잎이 사슴먹이로써 뛰어나다는 것이다.

산삼은 갈잎이 있는 곳에서만 자라는 영약으로 갈잎이 없는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사슴 또한 갈잎과 불가사의한 함수관계가 있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 사슴의 분포지가 다양하나 유독 갈잎 서식지에서 자라는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이 약효가 있다는 것이다. 갈잎 서식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일부지방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 녹용을 약재로

사용하는 것만 보아도 갈잎과의 무슨 상관 관계가 분명 있지 않나 싶다.

아직까지 산삼이나 녹용에 규명되지 않은 신비의 성분이 있듯이, 갈잎의 오묘한 성분도 규명되지 않고 있어 정말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제 갈잎이 서식하지 않는 지역의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의 약효에 대해 더 이상 논할 가치가 필요 없을것 같다.

농가에서는 사슴에게 갈잎을 빠뜨리지 말고 급혀하되 영양가 있는 사료와 적절히 안배하여 급여하길 바란다. 단, 갈잎만을 채취하여 사시사철 급여할 자신이 있는 농가는 제외한다.

셋째, 추운 겨울철 일수록 녹용생산량이 많아 지고 질 또한 좋아진다고 한다.

사슴의 생리상 겨울철이 길고 추울수록 녹용의 질이 좋아지고 생산량이 증량된다고

한다.

뉴질랜드에서 낙각후 60일에 절각한 녹용과 우리나라에서 80일경에 절각한 녹용, 그리고 러시아에서 90일 경에 절각한 녹용의 질이 비슷한 것이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의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이 으뜸이라고 하니 우리 양록농가들은 이를 경쟁무기로 삼아야 할 것 같다.

올 겨울철은 다른해에 비해 유난히 추웠으므로 얼마만큼 녹용에 변화가 있는지 기대해보자.

넷째, 녹용의 질에 승부를 걸어야 할때라고 한다.

그동안 녹용의 상대, 중대, 하대 등의 생산량에 그다지 신경을 안썼는데 이제부터는 질 좋은 녹용생산에 주력할 때인것 같다.

국산녹용의 우수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한의업계쪽에서 녹용의 질을 꼼꼼히 따질 낚새가 보이고 있어 낙각후 적기에 녹용을 절각하여 우수한 녹용을 내놓을 때이다.

질 좋은 녹용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사슴의 개체관리도 중요하지만 저능력 사슴은 과

감히 도태하는 결단력을 보일 때이다. 그리고 녹용을 녹각이 되기 이전까지 성장되도록해 무게만을 늘리는 양록은 이제 지양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녹용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언제까지 양으로 묶어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녹용의 질을 위해 녹혈을 덤핑으로 팔팔듯 하는 양록인은 없어야 겠다. 녹혈을 제값받고 팔되 정 못팔바에는 이듬해 녹용생산량의 증대를 위해 더 이상 녹혈이 세어나오지 못하도록 꼭꼭 틀어막아 두자.

다섯째, 수입녹용이 국산녹용으로 둔갑되어 판매된다고 한다.

최근 국산녹용의 호응이 점차 높아지자 일부 사슴농가에서 수입녹용을 국산녹용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보다.

국세청에서 수입녹용의 특소세 부과때문에 판매경로를 추적하던중 우연찮게 수입녹용이 국내 사슴농가로 들어가는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다고 한다. 정말 정신이 번쩍들게하고 황당한 일이 아닐수 없다.

TV매체에서도 수입녹용을

국산녹용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양록농가를 추적하여 보도 일보직전까지 갔으나, 마침 방송국 담당자를 잘 아는 양록인이 간곡히 설득하여 무마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전파를 타고 전국에 보도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몰라도 소비자들은 농가에서 생산한 순수한 국산녹용이 혹시 수입녹용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하루 아침에 국산녹용의 실망은 흔 들렸을 것이다.

지금당장 사리사욕에만 치우쳐 국내 양록업을 말살시키려는 반 양록인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각성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주위에서 혹시나 이런 반 양록인이 있는지 감시의 눈길을 한시라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이 최근 레이다에 걸린 양록에 관한 정보다.

정보는 어디까지나 우리 양록인의 자산이기에 하나라도 쉽게 흘려버려서는 안된다고 본다. 좋은점은 적극 홍보하고, 잘못된 점은 일이 터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슬기와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文)